

젊은 세대들의 농업 관심 미래 식량안보 위해 필수적

현재 지구에는
10억만 명이 넘는
젊은 세대가 살고 있다.
그 중에 61.5%의 젊은이들이
아·태 지역에, 상당수의 인구가
농촌 지역에 산다.
차세대 농업인과 지도자를
발굴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김 용 환
신젠타 동북아시아 지역 솔루션 개발담당 시장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겸임교수

최근 5명의 충남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LFAN(Love for all nations)이라는 팀이, 학교 축제기간을 이용하여 매우 특별한 캠페인을 펼쳤다. “미라클 캠페인” 이라고 이름 붙인 이 운동은, 간단하게 말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는 작은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식량관련 문제 의식을 더 고취시키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식량 안보, 기아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게끔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조그만 기여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꾸려는 그들의 열정은 포스터, 전시회 그리고 행사 관련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지구의 미래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인 Thought for Food Challenge의 심사위원회 역시 이를 놓치지 않았다. 금번의 동 행사에 참가한 전 세계 우수 대학의 50여 개의 팀은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인 식량 문제에 대해 그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견해를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 가능하면서도 혁신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바로 충남대 팀 역시 주목할 만한 팀에게 주는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식량안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농업이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농업에서 점차 멀어지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추세는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농촌에서 더 두드러진다. 아버지로부터 아들한테 농업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생활이 어렵고 소득도 낮은 농업을 버리고 도시로 간다. 농부인 부모들도 대부분 그들의 자식이 농촌에 남아 어려운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

다. 농업 관련 직업에 대한 매력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계 대학의 많은 수의 대학 원생을 신흥 개발국에서 오는 학생들로 충원해야만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날 우리나라 농업인 평균 연령은 64살 정도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곧 “젊은 세대들이 농업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다음 세대에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지구에는 10억만 명이 넘는 15~24세 사이의 젊은 세대가 살고 있다. 그 중에 61.5%의 젊은이들은 아·태 지역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상당 수의 인구는 농촌 지역에서 산다. 다음 세대의 농업인과 농업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지금 식량안보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도 농업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식량안보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피사리’ 라는 논 잡초제거 작업이 있었다. 제초제 없이 좁지 않은 농장을 일일이 손으로 김을 매는 것은 매우 힘든 노동이다. 이러한 고단한 농작업에서 농업인을 해방시킬 때 농업은 좀 더 매력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기술과 살포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한 무인헬기 방제기술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정밀하게 살포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첨단기술의 한 예이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번창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농업인들에 적합한 사업 능력, 농업 기술, 농작물 재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청년 및 성인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농



This is a wake up call!

Our planet is faced with the unprecedented challenge of feeding 9 billion people.

Thought For Food(TFF) 2012행사를 알리는 TFFCHALLENGE.COM의 홈페이지. 90억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큰 아이디어와 과감한 행동이 요구된다.

업 정보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이미 인도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젠타 정보서비스 ‘Krishi Shakti’가 농가의 수익성을 높여준 사례는 우리에게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IT 기반의 농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성공한 농업인이 다른 농업인들을 같이 이끌어 주고 지역 사회 내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이란, 혁신적인 농업개발기술을 이끄는 과학과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 마련, 시장 접근성, 보험과 금융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는 아무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 NGO와 농산업회사들은 함께 협력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과학과 정책의 조화, 등록 체계, 농업부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농업인에게 더 많은 제품과 기술선택권을 부여하는 기회 등을 잘 아우르는 적절한 조화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㉞